청소년들 전자담배 탈선 심각

"냄새 안 나 학교서 피우기 좋다" 인터넷 구매 급증

니코틴 흡입량 담배보다 2~3배…각종 부작용 호소

청소년들 사이에 '전자담배' 흡연이 유행하면서 니코틴 과다 흡입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연 열풍에 흡연량을 줄이려는 어른들이 '전자담배'를 선호하자, 관련 판촉 광고가 각종 인터넷사이트나 홈쇼핑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불을 붙일 필요없이 충전을 해 피울 경우, 연기만 나고 담배 고유의 역한 냄새 대신 향기가 발산된다. 또 유해성분인 타르가 전혀 없고, 니코틴은 종류에 따라 약하거나 아예 함유되지 않는 것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 상당수는 니코틴이 함유돼 담배 맛은 유지하되 냄새와 연기가 나지 않아 자유롭게, 심지어 학교에서 조차 들키지 않고 피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자담배를 사고 있다. 이때문에 일반 담배를 피울 때 보다 니코틴 흡입량은 더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같이 본인이 직접 가게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 판매 코너 등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흡연 4년째인 광주 A고교 3년 이모(18)군은 지난 4일 인터넷 한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한 뒤 일주일째 피우고 있다. 이군은 인터넷 질문코너를 통해 담배향과 비슷한 전자담배의 종류를 물어본 뒤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별다른 문제 없이 샀다. 이군은 "전자담배는 연기만 나올 뿐 옷·손에 냄새가 배지 않아 학교 화장실이나 운동장에서 쉽게 필 수 있다"면서 "교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맛과 향이 다른 전자담배를 돌려가면서 피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B고교 2년 박모(17)양은 지난 1일 친구에게 전자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남자친구를 통해 구했다. 박양은 학교·길거리·공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운다. 이양은 "일반 담배는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숨어서 피웠는데,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는 인식 때문인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운다"며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된 지 이미 오래 전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담뱃값이 부담된다며 전자담배의 종류와 구입경로, 구입 가격을 묻는 청소년들의 글이 하루 평균 100건 이상씩 게재되는 등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이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습관처럼 피우기 때문에 담배보다 2~3배 많은 니코틴을 흡수해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부 청소년들은 과다흡입으로 인한 두통·어지럼증·식욕부진 등 부작용까지 겪고 있다.

이에따라 금연상담기관에는 최근 전자담배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10대의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

광주 청소년상담기관 관계자는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 성분은 없지만 니코틴량이 수배 이상 많은 제품이 있고, 향을 내기 위한 각종 화학물질 등 검증되지 않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근 부작용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만큼 성장기 10대 건강을 보호할 관심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우린 특전 사나이" 10일 담양군 무정면 황금 박쥐부대에서 열린 '하계 특전캠프' 참가자들이 유격훈련 중 세 줄타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3명이(남자 128명·여자 75명) 참가한 이번 하계 특전캠프는 12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덤프트럭에 경유 배달해 판매 法위반…1500만원

탱크로리서 섞인 기름 모르고 팔아도…5000만원

"과징금 너무 많다" 행정심판 잇따라

#광주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조모(45)씨는 단골고객인 덤프트럭기사에게 부탁을 받고 경유를 배달, 주유하는 과정에서 잠복해 있던 한국석유관리원 호남지사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가정용인 경우 배달이 가능하지만 자동차 주유는 정해진 주유소에서 하도록 규정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조씨에게는 무려 1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김모(51)는 자신의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의 성분분석 결과 등유가 3% 섞여 있다는 한국석유관리원의 통보를 믿을 수 없었다. 등유 창고가 없고 따라서 등유를 판매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액은 무려 5000만원.

그는 석유를 운반하는 탱크로리에서 등유와 경유가 섞였다고 주장해 최근 무혐의 판결을 받고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최근 휘발유, 경유 등 석유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유사석유 판매나 행위 금지 위반 등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과징금 탓에 주유소 업주들이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한국석유관리원 호남지사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건수는 모두 15건으로, 이 중 2곳의 주유소가 지난 8일 열린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했다.

김씨는 "경유에 등유가 3%가 섞여 있다는 것은 고의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도 막무가내로 과징금부터 부과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1%가 섞였든, 50%가 섞였든 똑같이 유사석유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는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양제철소 허술한 고철 야적 환경오염 우려

市·환경단체·주민들 대책 요구

광양제철소의 허술한 고철 야적으로 각종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는 광주일보 보도〈2011년 8월 10일 6면〉와 관련, 광양시와 환경단체, 주민들이 10일 대책마련과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양시는 이날 전남도 관계자와 함께 광양제철소 고철 야적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광양제철소 측에 시설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야적된 고철로 우려되고 있는 대기·해양오염과 관련해 전남도에 공문을 보내 행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광양환경연합도 광양제철소의 고철 야적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관련법과 주민들의 불편을 파악한 뒤 관련 기관과 제철소 측에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철 야적장 인근 주민 300여명은 "야적장에서 날아 온 것으로 추정되는 쇳가루 때문에 농작물 피해는 물론,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 어렵다"며 광양시와 시의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고철 야적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본사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하이밀 공장과 후판공장 제강용 고철 12만t을 제철소 내에 상시 야적한 뒤 비산먼지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가출 10대들 '퍽치기' 행각

취객 현금·신용카드 빼앗아 생활용품 구매

서부경찰, 6명 검거

취객들을 상대로 일명 '퍽치기'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0일 취객들만 골라 강도짓을 한 임모(19)군 등 4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조모(여·16)양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 등은 지난 2일 새벽 0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삼각동 한 마트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홀로 귀가하던 임모(51)씨의 얼굴을 발로 찬 뒤 현금 7만2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3명의 취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씨 등으로부터 빼앗은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총 8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과거 소년원에서 함께 만나 알게 된 이들은 훔친 오토바이 2대를 나눠 타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이들은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함바비리' 강희락 징역 6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0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에게서 1억7000만원을 받은 뒤 전국 각지의 경찰관들을 소개해줬으며 인사 청탁을 받는 등 경찰청장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일선 경찰서장들이 유씨의 청탁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지기도 했으며,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들의 자부심을 크게 훼손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제 마늘밭 뭉칫돈 숨긴 부부 징역형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마늘밭에 묻어 전국적인 화제를 뿌렸던 이모(52)씨 부부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1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이씨의 부인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 부부는 큰 처남(48·수배)으로부터 불법 도박수익금 112억5천600여만원을 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09억7000여만원을 파묻은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나운찬

신안 비브리오 의심환자 사망

올들어 전남에서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 의심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70대 남성이 숨졌다.

전남도는 10일 신안에 거주하는 장모(73)씨가 비브리오패혈증 의심증세로 목포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평소 간경화 등 질환이 있었으며 지난 6일 생선회를 먹은 이후 9일 오한, 발열, 전신통증, 수포 등 비브리오패혈증 의심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필수기자 bungy@

'주가폭락' 증권사 직원 투신

최근 주가가 계속 폭락하자 이를 고민하던 40대 증권사 직원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0일 오전 7시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현관 출입구 앞에서 이 아파트 주변의 다가구주택에 사는 서모(48)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서씨는 자신의 아내 등에게 "만기 옵션 증권이 하루를 남기고 폭락해 손실이 컸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성당 사무장이 헌금 7천만원 '꿀꺽'

쌍나팔

○…목포경찰은 10일 성당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10년 동안 교인들의 헌금을 '꿀꺽'한 전모(여·41)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목포 모 성당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전씨는 지난 2000년도 초부터 최근까지 헌금 70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

○…경찰조사 결과 성당에서 헌금 정리 업무를 맡고 있던 전씨는 교인들이 낸 헌금 일부를 정상적으로 입금처리 하지 않는 수법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